

나이지리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

(2013. 5. 31)

I. 투자통계 평가

I-1.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해외직접투자(ODI) 실적

단위: 건, 천 달러

	2010	2011	2012	투자누계
연중 투자건수	1	2	1	32
연중 투자총액	6,331	3,460	2,665	195,563
(전년대비 증감률)	(-0.6%)	(-45.4%)	(-23.0%)	

□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해외직접투자 동향(요약)

-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(ODI) 실적은 2010년에 전년 대비 0.6% 감소하였으며, 2011~12년에는 총 투자총액의 97%를 차지하는 광업부문 투자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각각 45.4%, 23%씩 감소하였음.
- 2012년 말 기준 투자누계 실적은 투자건수 32건, 투자누계액 1억 9,556만 달러이며, 2006년에 이루어진 1억 1,660만 달러 규모의 원유 및 건설 플랜트 관련 대규모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.

I-2.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실적

단위: 억 달러

	2010	2011	2012
연중 유입금액	61	89	53
(전년대비 증감률)	(-29.9%)	(45.9%)	(-40.4%)

□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(요약)

-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실적은 2010년에 델타 지역(Niger Delta) 치안 불안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9.9% 감소하였으나, 201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45.9% 증가하였음. 2012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40.4% 감소한 53억 달러를 기록함.
- 대 나이지리아 FDI는 주로 원유·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, 주요 투자국은 미국, EU 회원국, 중국 등임.

II. 국가위험도 평가

II-1.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등급

	2011	2012	2013.5
한국수출입은행	C3(Stable)	C3(Stable)	C3(Stable)
OECD	5	5	5
S&P	B+/Positive	BB-/Stable	BB-/Stable
Moody's	-	Ba3/Stable	Ba3/Stable
Fitch	BB-/Stable	BB-/Stable	BB-/Stable

□ 대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(요약)

- OECD는 2012년 10월 개최된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나이지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하였음.
- S&P는 금융 및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개혁에 따라 재정 안정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1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+에서 BB-로 상향 조정하였음.
- Fitch는 BB-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, Moody's는 2012년부터 나이지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개시하여 Ba3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II-2. 나이지리아 단기유동성위험

	2011	2012
총외채/총수출 (%)	9.5	13.8
외환보유액/월평균수입 (개월)	5.3	4.0
외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(%)	0.4	0.3
단기외채/외환보유액 (%)	4.0	15.9
ECA 거래실적(OECD) (%)	27.1	25.2

주) OECD, CRAM 기준.

II-3. 나이지리아 수용·송금위험

	진단점수	
	2012.4	2013.5
수용위험(계약실행 가능성)	2.0	2.0
이윤 송금위험	2.5	2.5
대외지급 연체위험	2.0	2.0

주) PRS, ICRG 기준.

III. 투자여건 평가

III-1. 나이지리아 기업경영여건

		기업경영여건 순위	
		2011	2012
종합순위		133/183	131/185
1	사업등록(기업등록절차)	108/183	119/185
2	사업허가(상품보관창고 건축)	83/183	88/185
3	재산등록(재산양도 규제)	180/183	182/185
4	전력수급(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)	176/183	178/185
5	신용획득(법적권리·신용정보)	75/183	23/185
6	투자자보호(기업 거버넌스)	60/183	70/185
7	조세납부(조세부과대상·환급)	109/183	155/185
8	대외무역(수출입)	149/183	154/185
9	계약실행(법정 효율성)	98/183	98/185
10	사업폐쇄(파산)	105/183	105/185

주) World Bank(IFC), Doing Business 기준.

III-2. 나이지리아 글로벌경쟁력지수

		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	
		2011	2012
종합순위		3.5(127/142)	3.7(115/144)
1	제도(정책, 시스템)	3.3(111/142)	3.3(117/144)
2	인프라스트럭처	2.2(135/142)	2.3(130/144)
3	거시경제 안정성	4.0(121/142)	5.3(39/144)
4	보건·교육	3.3(140/142)	3.2(142/144)
5	인력관리(연수)	3.2(114/142)	3.3(113/144)
6	상품시장 효율성	4.2(73/142)	4.2(88/144)
7	노동시장 효율성	4.4(70/142)	4.5(55/144)
8	금융시장 발전수준	3.9(86/142)	4.1(68/144)
9	기술수준	3.1(106/142)	3.1(112/144)
10	시장규모	4.6(34/142)	4.6(33/144)
11	기업 발전수준	4.0(64/142)	4.0(66/144)
12	혁신	3.0(82/142)	3.1(78/144)

주) WEF, GCI 기준.

III-3. 나이지리아 시장동향·제도변화

<p>투자정책 (산업관리) (법률·규제)</p>	<p>□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 5월 출범한 궤력 조나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, 전력 등 사회인프라 부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. -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투자진흥위원회(NIPC)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·조정하고 투자분쟁 해결 - 5년간 식품, 원자재, 기계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선도산업 지정업종(65개)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면제 - 국내원자재 사용비율(Local content)*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 * 농산물제조분야 80%, 농업·석유화학 70%, 화학·엔지니어링 60% - 비석유 부문 중 특히 광물자원 개발에 3~5년간 비과세 인센티브 제공 - 수출가공지역(EPZ, Export Processing Zone)에 각종 면세혜택 부여 <p>□ 세계 20대 경제국 도약 비전 2020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월 '2020 나이지리아 전략비전'을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. - 전력부족 개선, 부정부패 척결, 석유산업·농업 편중 경제구조 다변화, 인프라 확충, 인적자원 개발 등을 달성방안으로 제시함. ○ 2011년 12월 조나단 대통령은 2012~16년에 국가 근간산업에 2,028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함. <p>□ 불안정한 전기 공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의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전 발생 등 만성적 전력난이 지속되어 기업투자 저해요소로 작용함. - 세계은행(WB)의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 평가에서 전력수급이 176/183위(2011), 178/185위(2012)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.
<p>외환제도 (외환통제) (해외송금) (환율동향)</p>	<p>□ 투자과실 해외송금 전면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외환규제가 철폐되어 외국인의 외환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영업상 과실에 대한 해외송금이 법적으로 보호됨. <p>□ 나이라(Naira)화 가치 약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이라화 환율(달러화 대비)은 2008년 118.6, 2009년 149, 2010년 150.3, 2011년 154.7, 2012년 156.8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음. ○ 나이지리아 중앙은행(CBN)은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한 안정적 환율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.
<p>조세제도 (법인세)</p>	<p>□ 법인세율 인하 지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투자촉진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하였으나, 법인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현행 30%가 적용되고 있음. <p>□ 석유소득에 과세혜택 부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90년 제정된 석유소득세법(PPT)에 따라 석유자원개발 관련 기업은 과세소득 기준을 기업이익의 85%로 설정함. 사업개시 후 5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세소득을 65~75%로 규정함.

<p>금융제도 (현지조달) (자본시장)</p>	<p>□ 나이지리아 은행 구조조정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행들의 자본잠식, 경영진의 공금유용 및 불법대출 등 방만한 경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5년부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(CBN) 주도로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, 2009년 사누시 중앙은행장 취임 이후 더욱 강도 높은 금융부문 개혁이 진행 중임. - 시중은행 89개에서 24개로 통폐합(2005) - 부실정도 심각한 9개 은행 대상 42억 달러 구제금융 투입(2009) - 부실여신 흡수 위한 국영 자산관리공사(AMC) 설립(2010. 11) - 자본재구성요건(recapitalization)에 미달한 3개 은행(Afriland, Bank PHB, Spring Bank) 면허 취소(2011. 8) <p>□ 기준금리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이지리아 중앙은행(CBN)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기준금리를 6%대로 유지해 왔으나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9.25%에서 12%로 2.75%p 인상함. ○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여 2013년 2월에 종전 12%를 유지함.
<p>노동제도 (근로조건) (고용·해고) (노사관리)</p>	<p>□ 높은 실업률, 우수인력 확보 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식 실업률은 20%대인 반면, 비공식 실업률은 4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 특히 청년층(15~24세) 실업률이 2011년 37.7% 수준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. ○ 취업자의 약 60%가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비농업 부문에 숙련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. 노동자의 근면성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<p>□ 최저임금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1년 3월 최저임금을 월 5,500 나이라에서 1만 8천 나이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. <p>□ 현지인 우선 채용 장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 직무를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쿼터제를 시행 중이며,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허가제 실시 중임.
<p>무역제도 (관세수준) (무역제한)</p>	<p>□ 지역통합 고려한 관세제도 개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는 2005년부터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(ECOWAS)의 역외공통관세(CET)에 맞추어 관세제도를 개정하고 있음. * ECOWAS : 서아프리카 국가간 비관세 및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1997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○ 2008년 9월 2008~12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 발표 - 10년 이상 중고차량의 수입 금지, 기초원자재 수입관세율 인하(10%→5%) 등 일부품목의 수입금지 및 관세율을 조정함. * 필수품(0%), 기초 원자재(5%), 중간재(10%), 나이지리아 비생산 완제품(15%), 나이지리아 생산 완제품(35%) <p>□ 수입제품 규제 프로그램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9년 6월 생명위협제품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 프로그램(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)을 모든 수입제품에 확대하기로 하였음(단,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 일부 품목 제외). - 나이지리아 표준기구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, 미제출시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. ○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·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.

주)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

□ 나이지리아 시장동향 · 제도변화 평점

중전평가 대비	매우 악화	악화	유지	개선	매우 개선
투자정책		X			
외환제도			X		
조세제도			X		
금융제도			X		
노동제도			X		
무역제도			X		

주) 중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

□ 나이지리아 시장동향 · 제도변화(환율변동 · 소비자물가상승)

	2011	2012	(증감률)
환율변동	154.7	156.8	(0.01%)
물가상승률(2012년)	10.84%	12.22%	

IV. 종합 평가

평가분야	평가의견
투자통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실적은 201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45.9% 증가하였으나,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0.4% 감소함. □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(ODI) 실적은 2011~12년에 총 투자총액의 97%를 차지하는 광업부문 투자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 대비 각각 45.4%, 23% 감소하였음.
국가위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나이지리아 정부의 금융 및 전력산업에 대한 개혁에 따른 재정 안정성의 증대를 고려하여, S&P는 2012년 11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+에서 BB-로 상향 조정하였음. 단, OECD(5등급), Fitch(BB-), Moody's(Ba3)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. □ 단기유동성위험 전년 대비 악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, 총외채/총수출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 부문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 □ 수용·송금위험 수준은 2012년에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.
투자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2012년 기업경영여건은 종합순위가 전년 대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계은행(WB)의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 평가에서 종합순위는 133/183위(2011)에서 131/185위(2012)로 평가순위가 개선되었으며, 신용획득 부문의 순위는 2012년에 전년보다 52위 상승함. □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합순위가 전년 대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합순위가 127/142위(2011)에서 115/144위(2012)로 상승함.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2012년에 전년보다 82위 상승함. □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는 종전 수준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세제도 부문에서는 투자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계개혁안(2010년 1월 승인)에 따른 법인세 인하 시행이 2012년 현재 지연되고 있음. ○ 금융제도 부문에서는 2009년 사누시 중앙은행장 취임 이후 2012년에도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종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환경위험 평가(위험)수준은 요주의("높음")로 종전 수준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실적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함. ○ 국가신용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되었으며,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고, 수용·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. ○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각각 신용획득 부문과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여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며,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. ○ 현 조나단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전력공급 부족 등 열악한 경제 인프라, 니제르 델타 지역과 북부 이슬람 지역의 고질적인 치안불안 문제 등을 투자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.